

배스 루어낚시 여가갈등 이해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의 방향성 탐구*

정미송** · 김매이***

다양한 여가활동 중 낚시는 해수면, 내수면의 지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배스 루어낚시는 스포츠낚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며,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배스 루어낚시인의 증가와 함께 환경적, 생태계적 문제, 법 제도적 문제, 여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배스 루어낚시 관련 여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스 루어낚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배스 루어낚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여가갈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배스 루어낚시인들이 겪는 여가갈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배스 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잡은 후 놓아 줌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가낚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재로 인한 사회규범 갈등이 존재하였으며, 배스 루어낚시인과 어업종사자, 지역주민 간의 대인관계 갈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가갈등 이해를 토대로 배스 루어낚시가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주요어 : 배스 루어낚시, 루어낚시, 여가갈등

* 이 논문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주저자)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kimmay@korea.ac.kr)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각자 욕구와 개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즐기고 있다. 다양한 여가 활동 중 낚시는 도심이 아닌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점,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다(김기철, 윤유식, 2012).

특히, 생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루어를 사용하는 낚시가 최근 인기 있는 레저로 등장하고 있다. 루어낚시란 인조 미끼를 이용해 공격성이 강한 어종을 낚는 낚시 유형이다(김지민, 우듬지, 2013). 무생물의 인조미끼 즉 루어를 이용해 살아 있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은 미끼를 드리우고 물고기가 먹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전통적 낚시와 달라 낚시인 개인 기량이 매우 중요하다. 루어낚시에서 볼 수 있는 개인 기량 차이는 낚시를 게임 또는 스포츠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고(김욱, 2008), 이를 바탕으로 루어 낚시는 단순히 레저를 넘어 원칙을 정하고 기량을 겨루는 하나의 스포츠 경기로 재탄생되고 있다. 루어낚시 중에서도 민물에서 행해지는 큰 입 배스(large mouth bass) 어종을 대상으로 한 루어낚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어 스포츠 낚시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김욱, 2008). 50 여 년 전, 당시 농어촌의 수입증대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 확보를 위해, 큰 입 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 이후, 배스의 강한 어식성, 많은 포란 수, 산란 후 산란장을 지키는 생태적 특징, 뚜렷한 천적 부재로 인해 배스는 단기간에 우리의 강과 호수 등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고 현재는 배스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의 대형 댐이나 호수 및 하천에 서식하고 있다(이완욱, 이일로, 송하운, 방인철, 2008). 한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배스와 무지개송어 낚시가 붐을 이루면서 루어낚시가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세숙, 2014).

그러나 배스 어종의 토착화, 배스 루어 낚시인들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한 내수면의 생태적 문제, 낚시 관련 법 제도적 갈등 등 여가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매일일보, 2017; 매일신문, 2019; 현대해양, 2021).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지역주민, 어민들의 불만, 애매모호한 배스처리법으로 인한 배스루어낚시인의 심리적 갈등 등, 여가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배스 루어낚시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배스 루어낚시와 관련된 이해 집단들의 갈등과 배스 루어낚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여 배스 루어낚시인들이 갈등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방향성을 찾을

* 큰 입 배스는 영어식 표기로는 largemouth bass이며, 농어목 검정우럭과의 민물고기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어종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큰 입 배스를 배스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스 루어낚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배스 루어낚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즉 여가갈등의 현황을 배스 루어낚시 전문가, 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배스 루어낚시의 여가갈등들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나아가 여가갈등들을 해소하고 배스 루어낚시가 건전한 레저스포츠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스 루어낚시와 관련한 여가갈등은 무엇인가?

둘째, 배스 루어낚시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배스 루어낚시(Bass lure fishing)

낚시산업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풍부한 수자원과 낚시산업의 발달로 엄청난 인구의 낚시 산업과 스포츠를 자랑한다. 16세 이상의 낚시 인구를 조사한 결과, 3000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6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낚시 인구만도 8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김희재, 2009).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767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해양수산개발원, 2020).

낚시란 세계경기낚시연맹(IGFA: 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에 따르면, 낚싯대와 릴, 낚싯줄, 낚시 바늘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한다(서동찬, 1998). 낚시는 장소에 따라서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민물낚시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다낚시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고, 2003). 수많은 낚시 종류 안에서도 루어낚시는 대표적인 스포츠 피싱으로 꼽히고 있다. 루어 낚시는 유인동작을 통해 고기를 잡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의 활동성이 크고 적극적인 활동 성향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캐스팅 과정과 리트리브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시간이나 참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수백회 이상 반복될 수도 있다(김욱, 2008). 낚시인이 루어로 대상어종을 유인하여 물게 해야 하므로 낚시인 개인 기량 차이가 중요하고, 생미끼 낚시에 비해 운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개인의 기량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다(김욱, 2008).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루어 낚시는 규칙을 정하고 기량을 겨루는 경기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 놀이로 머물러 있던 낚시가 스포츠 피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김욱, 2008).

배스루어낚시의 대상어인 배스는 북미가 원산지이며, 농어목 검정우럭과의 민물고기로 포식압이 강해서 다양한 먹이를 섭식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현택, 이의행, 안광국, 2013). 하지만 이러한 배스의 포식적, 공격적인 습성 때

문에 낚시행위가 굉장히 치열하고 과감하여 많은 낚시인이 즐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7년 Ray Scott이 배스 낚시 토너먼트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토너먼트가 선보이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프로 배스 토너먼트인 FLW(Fishing League Worldwide)가 소개되면서 배스 루어낚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는 FLW와 B.A.S.S., 이 두 토너먼트 조직이 미국의 프로 배스 루어낚시 영역을 이끌어가고 있다(Bernthal et al., 2015). 우리나라는 1973년 6월 15일,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청평 내수면연구소에서 식량자원 확보 및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배스 치어(稚魚) 500마리를 미국 루이지애나주로부터 들여왔다(김현택 외, 2013). 1990년대부터 배스의 서식지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배스낚시의 보급은 재래식 낚시 형태에서 연구하는 낚시로 진화하는, 즉 루어낚시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배스 루어 낚시 토너먼트는 1995년 서울, 인천, 수원 의 세 지역 배스낚시 클럽이 모여 경기도 양평 대심리에서 처음 토너먼트 경기가 개최되었으며, 현재 KSA(Korea Sports Fishing Association,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KBFA(Korea Bass Fishing Association, 한국배스피싱 협회), KB(Korea Bass Pro Association, 한국배스프로 협회), LFA(Lure Fishing Association Korea, 한국루어피싱협회) 4개의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낚시춘추, 2015).

2. 여가갈등

사람들은 사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즉, 여가활동 참여 중에 경험하게 되거나 여가활동과 관련된 갈등을 학자들은 여가갈등이라 말한다. Jacob & Schreyer(1980)는 여가갈등을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목적방해라 하였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로 보았다. 동일 활동 및 타 집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또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구체적인 경험 및 목적여부(Vaske, Dyar, & Timmons, 2004)나 여가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의 정도(Thapa & Graefe, 1999)에 따라 여가갈등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통제불능한 산악자전거 타기, 무례한 스키어/스노보더 행동 등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대해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lahana, Smith, & Anderson, 1995).

선행 연구에서 여가갈등에 관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대인관계 갈등이다. 대인관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은 여가 참여자들이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은 발생한다(Jacob & Schreyer, 1980). 또, 활동에 대해서 비슷한 가치관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룹간의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Vaske, Donnelly, Wittmann, Laidlaw, 1995). 스키를 타는 사람과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충돌, 제트 스키어들이 모터보트를 방해, 카누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대인관계 갈등의 예이며 이것을 목표방해라고 정의한다(한우진, 2005).

사회규범 갈등(Social Values Conflict)은 대인관계 갈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여가활동의 적합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규범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Vaske et al., 1995). 대인관계 갈등은 그룹 간 어떤 활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규범이 다를 때 일어난다(Vaske et al., 1995). 대인관계 갈등과는 다르게 사회규범 갈등은 그룹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Carothers & Vaske, 2001). 관련하여, 라마를 이용한 여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여가갈등을 다루고 있는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Blahana et al., 1995).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여가활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여가갈등이 존재하는데, 낚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과 낚시인들의 갈등 관계에 대한 연구(Penny, 2004), 동력이용자들과 낚시인들의 여가갈등을 다룬 연구(Donald, 2011), 낚시인들이 겪는 여가관련 갈등과 대처반응에 대한 연구(Susan, & David, 2010)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루어낚시 참여자와 붕어낚시 참여자의 여가갈등유발 요인과 대처행동 요인에 관한 연구(함동길, 2014)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내의 배스 루어낚시와 관련된 여가갈등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목적은 배스 루어낚시라는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갈등을 이해하고 국내에서 배스 루어낚시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스 루어낚시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이입집단을 모색한 후, 각 집단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줄 수 있는 6인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스 루어낚시 산업에 종사하고, 여가갈등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내외 낚시 프로 3명, 어류 생태학자 1명,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 2명, 어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 1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1. 연구대상자 정보

이병윤(가명), 배스 루어낚시인 1	2002, 2010, 2012년 3차례의 Angler of the year를 수상, Korea Master Classic Champion을 5번 우승, FTV ‘극과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중이며, 현재도 프로대회에 참가하면서 루어샵을 운영 중이다.
김지수(가명), 배스 루어낚시인 2	2011년 프로데뷔를 종합 3위와 신인왕, 2012년 2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ngler of the year를 수상, FTV ‘스포츠 피싱 디코드’ 방송의 진행을 하고 있다.

<p>최준영(가명), 배스 루어낚시인 3</p>	<p>미국 배스 낚시 프로 리그인 USA Tournament Pro-Angler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6시즌동안 프로경기를 치루었으며, FLW, Wonbass, US Open, American bass, National bass, TBF 등의 대회에서 총 27회 Top10 달성을 하였다. 한국인 최초로 Forrest Wood Cup 대회에서 결선 진출 하였으며 연간 종합성적을 냈다. 루어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p>
<p>이하늘(가명), 어류 생태학자</p>	<p>일본 북해도 대학 객원연구원, 군산대 해양생명과학부 교수, 국립수산진흥원 청평 내수면연구소 연구원 등의 직책을 맡았고, 현재는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종 어종을 신중으로 기재하고, 미 기록 중 33종을 발굴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담수어 보전에 힘썼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어류 생태학자이다.</p>
<p>이원희(가명), 어업종사자 1</p>	<p>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영산강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p>
<p>윤지윤(가명), 어업종사자 2 &지역주민</p>	<p>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에 위치한 탐정호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탐정호 근처에 거주하여 인근 주민이기도 하다.</p>

2. 연구방법

배스 루어낚시와 관련된 여가갈등이라는 다소 생소한 연구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1 대 1 개인별 집중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각 면담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상자별 2-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회의 추가 면담을 더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거주 지역 및 편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배스 루어낚시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큰 입 배스는 유해한가요?” 등의 질문을 포함한 면담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낚시와 여가, 심리적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도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허가를 받은 후, 녹취되었으며 이는 추후에 전사되었다. 전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같은 관계에 있는 것들로 분류하였다. 분류 이후,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구분하였다. 범주화는 크게 코드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패턴화하여 범주를 구성하고 생성하는 일, 범주를 명명함으로써 비로소 논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 그리고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찾으면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의 위계를 짓고 구분하는 일 등 세 가지 작업으로 구성된다(전현욱, 2021). 심층면담 결과를 범주화를 통해 배스 루어낚시 관련된 여가갈등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진실성과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해 자료수집의 다원화 방법인 삼각검증(triangulation)과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작업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참여자들이 배스 루어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여가갈등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갈등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면담결과는 크게 개인 사회규범 갈등과 대인관계 갈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배스 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잡은 후 놓아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가 낚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재 등의 사회규범 갈등, 어업 종사자들과 배스 루어낚시인들, 지역주민들과 배스 루어낚시인 간의 대인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규범 갈등과 대인관계 갈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규범 갈등이 고조되면 서 결국에는 이해집단간의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사회규범 갈등

1) 배스 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현재, 성기준(2018)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스 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배스의 이미지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배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스가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배스를 ‘유해하다’고 간주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수행한 결과, 배스 종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연구 참여자인 어업종사자 1, 2는 배스의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종이 줄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이야기하며, 배스의 유해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어류 생태학자는 다른 참여자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생태계적 유해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유해 어종인거죠. 생물 중 세상에 유해 한 종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자기가 살지 않았던 곳에 옮겨졌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행동을 했을 때 유해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하다’는 것과 자연생태계 기준으로 ‘유해하다’는 것은 달라요. 기준을 누구로 하냐는 거예요(어류 생태학자).”

그는 ‘유해’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유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스에 대한 인식도 때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유해’의 기준, 배스에 대한 인식은 집단마다 다르고, 배

스낵시와 관련된 행위의 수용 여부도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스를 유해어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배스 어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규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배스 낚시를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해어종이어나요(어업종사자 1).”

어업종사자 1은 배스 낚시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도, 유해어종을 낚시의 대상 어종으로 삼으며 주기적으로 배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배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여가로서 배스 낚시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배스 루어 낚시인 1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낚시를 하였고,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보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점에서 씁쓸하다고 표현하였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배스 낚시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돌아온 배스 루어낚시인 3은 한국에서는 배스 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낚시를 눈치 보며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말해주었다.

여러 연구 참여자들의 대화를 정리·종합해 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인 배스 루어낚시인 모두 배스 어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선으로 인한 사회적 규범 갈등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규범 갈등은 다른 이해 집단 간의 어떠한 물리적 접촉이 생기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사회규범 갈등이 점점 고조되며 대인관계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잡은 후 놓아 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구 참여자인 배스 루어 낚시인 1, 2, 3은 배스 낚시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으로 가장 먼저 배스를 잡은 이후 놓아주는 행위를 뽑았다. 이들은 배스가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캐치 앤 릴리즈 행위를 하는 것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고 애매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캐치 앤 릴리즈 행위는 미국 낚시인 그룹과 환경보호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잡힌 물고기를 다치지 않게 산 상태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일컫는다(Stephen, 2001). 낚시인들이 잡은 물고기를 식용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민물낚시에서는 잡은 후 놓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입·반입, 사육·재배, 방사·이식, 양도·양수, 보관·운반·유통해서는 안 된다(환경부, 2018). 어업종사자 1은 배스 루어 낚시인들이 잡은 배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배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배스를 잡으면 죽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살려주니까 개체수가

줄지 않아요(어업종사자 1).”

배스 루어낚시인 1, 2, 3은 잡은 후 놓아 줌 행위에 대한 법의 모호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배스 루어낚시인 3은 배스를 잡은 후 처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잡은 후 처리를 더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관리방법에 의하면 “잡은 개체는 식용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땅위에 던져두면 쉽게 죽는다. 죽은 사체는 수거하여 수거하는 곳에 전달해 준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거나 사료나 비료 제조용으로 쓸 수 있다” 라고 공시되어 있다(환경부, 2009). 즉, 잡은 배스를 가져가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선 땅 위에 버려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배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은 사체를 수거하여 수거하는 곳에 가져다 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낚시 지역에는 수거하는 곳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배스 처리 방법에 대한 모호함에 배스 루어 낚시인들은 굉장히 큰 갈등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보는 것도 실제로 죽여야 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배스 루어낚시인 3).”

배스 루어낚시인 3은 살아 있는 생명을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배스 루어낚시인들은 유해생물에 대한 처리법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으나, 살생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결국 놓아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해어종을 놓아 주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잡은 후 놓아줌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규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배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인 어류 생태학자는 이러한 애매한 법적인 부분들이 개선, 조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어류 생태학자는 법의 취지가 단속이 아닌 방지의 의도로 만들어 졌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한 쪽의 의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양 쪽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스 처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규범 갈등의 한 형태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사회규범 갈등을 넘어서, 어업종사자, 지역주민들과 배스 낚시인들 간의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여가 낚시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재

낚시는 대표적인 아웃도어 여가 활동으로 산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앞으로도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준하는 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장안성, 2017; 오세숙, 2017, 이광남, 2003; 이강, 2012; 조계근, 2002). 본

연구의 참여자, 배스 루어낚시인 1, 2, 3은 아직까지도 여가 낚시 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구 참여자인 어업종사자 2는 생계를 위해 어업을 하는 것과 여가활동을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을 비교하며 배스 루어낚시인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배스 낚시꾼들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생계를 위해 어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 낚시를 하잖아요(어업 종사자 2).”

어업종사자들은 어업행위가 배스 낚시인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생계로 어업행위를 하는 것과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것은 다르다며 배스 낚시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좋지 못한 인식 때문에 어업종사자들은 배스 낚시인들과 마찰을 자주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장려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를 확립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배스 루어낚시인 3).”

이에 배스 루어낚시인 3은 면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러한 제도가 생겨야 낚시인이 죄책감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낚시 행위에 대해 떳떳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낚시가 허용 되는 지역의 면허를 구매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 곳에서 하는 낚시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낚시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개의 연방정부와 50개의 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낚시를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으며, 여가 목적을 위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고유한 권리를 전제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강, 2012). 이러한 법적 제정은 미국을 낚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낚시 산업의 발전을 꾀했으며, 낚시인의 저변 확대 효과를 가지고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가 낚시 관련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업계의 위축을 초래하였고,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강, 2012).

본 연구 결과, 낚시 관련 법 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규범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회규범 갈등은 인해 다른 이해집단과 배스 루어낚시인들 간의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인관계 갈등

1) 어업 종사자와 배스 루어낚시인 관계

대인관계 갈등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Devall & Harvey, 1981). 본 연구에서도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한다. 낚시는 내수면과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어업 종사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강중호, 이정삼, 이현동 2012). 그러다 보니 동일 수면과 수산자원을 생계로 어업을 하는 사람과 레저로 낚시를 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탐정호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종사자 2는 이러한 배스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겪는 상황을 불평하였다.

“어업을 할 때 잡는 종이동어, 뱀장어, 메기, 쏘가리 등 여러 가지 다 잡아요. 하지만 산란기인 봄에 배스가 다른 어류의 알을 많이 먹으니까 많은 개체수로 번식을 못해요(어업종사자 2).”

위와 마찬가지로, 영산강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 종사자1은 배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잡은 배스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 못 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는 배스가 토착종들을 위협하고 빠른 확산성으로 서식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또한 배스 개체수의 증가는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면서,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의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어업종사자들은 루어 낚시인들의 보팅 낚시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배스 루어 낚시는 워킹*과 보팅**이 대부분이다. 면담에 참여한 어업종사자 2는 어업을 하고 있는 탐정호에서 동력을 사용한 보팅 낚시 행위는 금지라고 주장하였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노를 저으며 낚시는 행위는 대부분의 저수지, 호수, 강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낚시인들이 탐정호에서 동력을 사용한 고무보트, 카약, 벨리 등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며 낚시 행위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어업 종사자들은 이런 불법 보팅 낚시인들이 낚시 도중 어망을 찢는다던가, 운행경로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배스 루어낚시인 1, 3은 수자원이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자원은 누구 것인가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배스 루어낚시인 3).”

배스 루어낚시인들은 수자원은 어업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집단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구(2008)의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수록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여가갈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수자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여러 이해 집단이 사용하면서 대인관계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걸어 다니면서 포인트를 옮기며 낚시하는 행위

** 동력을 이용하여 낚시를 즐기는 행위

2) 지역 주민과 배스 루어낚시인 관계

Thapa & Graefe(2004)는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 일어나는 여가갈등이 아닌 활동 유형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여가갈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쓰레기 투척, 난폭함, 소란스러운 행동 등으로 인하여 여가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낚시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낚시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다고 설명한다(오세숙, 2017; 이광남, 2003). 본 연구의 참여자인 지역 주민 1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탐정호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종사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이다.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낚시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수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청소해요.(지역 주민, 10. 24. 2018).”

지역주민은 낚시인들로 인한 환경오염, 수질오염 때문에 낚시인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한다.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면서 낚시인들과 지역주민 간의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으로 해당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 예로, 철원군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20조 규정에 따라 학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매일일보, 2017), 경북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영주호를 2019년 3월 18일부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매일신문, 2019). 이러한 정책에 화가 난 낚시인들은 낚시 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을 통해 낚시행위가 환경파괴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레저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하천법」 제 46조 제 6호 및 「물환경보전법」 제 20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21).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시 라이선스가 생겨서 그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을 관리인으로 고용창출을 하면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배스 루어낚시인 3).”

배스 루어낚시인 3은 낚시 필드를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낚시 면허제도의 수익이 지역의 경제발전, 고용창출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낚시 관련 법, 제도 부재는 앞의 내용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규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낚시인들과 주민들의 대인관계 갈등으로 심화시키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의 방향

1) 배스에 대한 인식 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배스는 전국의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고, 배스를 들여온 지 40년을 넘어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배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류 생태학자는 사람들에게 배스의 부정적 인식 형성에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어부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배스낚시가 나오고,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낚시의 한 장르로 소개되고 있어요. 프로 대회에 1억짜리 상금이 걸려있고 배스낚시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성이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니까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는 어종으로 인식하고 배스 어종에 대한 정서가 바뀌어요. 이 모든 것을 언론이 쥐락펴락 해요. 이렇듯 우리 사회가 조율을 해줘야 돼요(어류 생태학자).”

배스 루어낚시인 2는 배스요리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배스요리 경험을 토대로, 배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배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 배스가 처음 도입된 것도 이러한 영양학적 특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배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이현재 외, 2018). 배스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배스 루어낚시인 1, 2,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강, 호수 등을 걸쳐 우리나라 수자원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배스 등의 어종을 인위적으로 완전 멸종시킬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배스 루어낚시인 모두 이미 배스는 우리나라 수자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종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어류 생태학자도 배스 낚시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의 경우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으로의 배스 유입과 같이 미국의 가물치 종의 유입 예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였다. 미국 거주인의 가물치 방류로 인해 미국 전역에 가물치가 퍼지게 되었고, 가물치는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의해 유해 생물로 지정되었고, 36개 이상의 주에서 가물치의 이식, 방사를 불법화하였다(Melissa, 2016). 하지만 많은 낚시인들이 가물치를 잡고 싶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물치가 잡히는 지역에 찾아가는 등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가물치의 출현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David, 2008). 이후 현재 미국 정부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가물치 낚시를 장려하여 가물치 종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Thai, 2012). 이 같은 미국정부의 조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에서 여가로써의 배스 루어낚시의 확대 및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배스의 생태계적 부정적인 특성만을 인식하고 배스를 꼭 퇴치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보다는 배스 어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어떠한 자원으로 활용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2) 배스와 배스 루어낚시 관련 연구 필요

배스 종을 들여온지 벌써 40여년이 넘었고, 배스 루어낚시 인구도 10만 이상의 동호인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양과 질 모두의 성장을 꾀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김욱,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스 어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생태조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가 정말 위해성을 주는지 안주는지,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 왜 많은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요(어류 생태학자).”

어류 생태학자는 우리나라 수자원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배스 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완옥(2009)의 연구에서 배스의 먹이생물종을 알기 위해서 인조 미끼를 사용해 배스를 잡아서 위를 절개하여 먹이생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어류 생태학자는 이러한 연구들이 양과 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배스 어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스 루어낚시 관련된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 연구는 민물 붕어 낚시인과 배스 루어낚시인 간의 갈등현상에 대해 연구한 함동길(2014)의 연구 외에는 없다. 배스 루어낚시 여가갈등에 대하여 보다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으로서 낚시의 빠른 발전 속도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배스 어종과 배스 루어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해외의 선진국의 경우처럼 적절한 제도와 관리 하에 스포츠로써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 레저스포츠 피싱 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김동열, 2008).

3) 법적, 제도적 개선

본 연구 연구 참여자 배스 루어낚시인 1, 2, 3은 낚시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 중에서 법·제도의 미흡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낚시면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물과 마찬가지로 바다도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모두 바다도 지금 심각해요. 라이선스나

낚시면허제도 법이 없어서 그래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법 규정이 세분화 되어 정확하게 생기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낚시 관련 면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배스 루어낚시인 1).”

낚시 면허 제도는 일정한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낚시의 기초 지식과 제한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이상고, 2003), 현재 당면한 낚시 관련 여러 여가갈등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이강, 201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생태 왜곡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면허제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진행되어 왔다(김동열, 2008). 그러나 10여 차례 이상 시도된 낚시면허제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때문에 레저스포츠형 피싱 발전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동열, 2008; 강종호, 2012). 낚시 면허제에 옹호하는 낚시인들과 지자체는, 낚시터 오염이 심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규 미비로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이광남, 2003). 낚시 면허제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반대 입장을 가진 낚시인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그들은 그동안 정부규제 없이 무료로 낚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여가 행위를 즐기는데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소병천, 2006). 이에, 장안성(2017)은 낚시 면허제 도입을 위해서 낚시면허제 도입의 취지, 환경피해의 심각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낚시면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도,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어류 생태학자는 낚시면허제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낚시인, 생계로 어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고려하고, 각 지역마다 낚시면허제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차원의 접근보다는 좋은 낚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 국민의 낚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낚시인들 뿐 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배스 낚시의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

북미에서 레저스포츠로서 낚시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 미국에서 낚시에 지출되는 액수는 473~568억 달러(한화 55조원 ~ 66조원)로 추정된다(Rachael, 2016). 북미의 레저 낚시의 경제적 효과는 Major League Sports(NFL, NBA, MLB, &NHL)를 합친 양보다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achael, 2016). 배스 루어낚시인 3은 이러한 미국의 예를 들며 배스 낚시의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낚시 인구가 있고 그 낚시 인구 때문에 산업과 제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보트 산업, 안전구 산업, 낚시 용품 사업, 의류 사업 모든것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연방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게 기업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고, 수익 창출 이전에 시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게 잘 돌아가고 있죠(배스 루어낚시인 3, 10. 21. 2018).”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산업의 발전은 대국민 레저 스포츠의 향상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써의 기여도가 높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강중호 외, 2012). 배스 루어낚시인 3은 국내에 보팅 낚시문화가 아직 발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많은 곳에 보팅 낚시가 허용된다면 관련 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스 낚시를 개최하는 미국에서는 7개의 대형회사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배스 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2~3척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은 분야인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스 보트는 11~12ft급 소형 배스 보트로 배스낚시 경기에 주로 사용되는 17ft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임준택, 서광철, 박근홍, 김상원, 2018). 보트 관련 산업 이외에도 보팅이 주말에 허용되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 예도 있다. 안동시는 한때 토종 어류를 먹어 치워 생태계파괴의 주범이었던 외래어종 배스를 관광 상품화했다(오세숙, 2017). 2016년 안동호를 찾은 배스 낚시인이 1만 명이 넘어섰으며,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영남일보, 2016). 배스 프로 낚시 토너먼트를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는 배스 루어낚시인 2, 3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땅이 작고, 수자원의 여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잘 관리 되었을 때, 지역발전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배스 루어낚시의 활성화는 부가가치 창출과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타 산업 이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스 루어낚시가 가지고 있는 여가성과 스포츠성을 극대화시켜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배스 루어낚시 전문가들, 생태계 전문가,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배스 루어낚시 활동의 갈등에 대해 면대면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배스 낚시에서 일어나는 여가갈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여가갈등의 첫 번째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하는 참여자들과 그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사회규범 갈등이다. 배스 어종

이 단기간에 우리나라 수자원에서 최상위 포식자 위치를 선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배스 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배스 루어 낚시인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로, 배스를 잡은 후 놓아 주는 행위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 따른 사회규범 갈등이다. 배스 루어 낚시인들은 생태교란 어종을 잡은 후 놓아주는 행위에 대한 법의 애매모호함이 이런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번째로, 법적 정당성 부재로 인한 여가 배스 루어 낚시인들의 사회규범 갈등이다. 배스 루어 낚시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낚시면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가행위로써의 낚시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로, 배스 루어 낚시인들과 어업 종사자들과의 대인관계 갈등이다. 배스 루어낚시 행위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피력하였다. 동력을 이용한 루어낚시는 어업의 운행경로를 방해하고, 어망을 찢기 때문에 어업 종사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 이러한 갈등들로 인해 어떤 저수지에서는 동력을 이용한 낚시가 금지되기도 하였고 일부 낚시터에서는 요일별로 낚시 허용 시간을 정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무단 방치로 인한 낚시인들과 주민, 어업 종사자들과의 대인관계 갈등이다. 낚시인들로 인한 쓰레기는 결국에 지역 주민이나, 어업 종사자들이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치우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여가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배스 루어 낚시가 레저스포츠로서 그리고 낚시 및 여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배스는 우리나라 수자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종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배스 루어 낚시 관련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배스 루어 낚시 관련 여가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낚시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금을 축적한 후 여가갈등의 대표적 유형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어민들과의 갈등에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스 루어 낚시를 하나의 레저스포츠 유형으로 발전시키고 낚시 관련 장비나 재료, 야영, 캠핑, 호수 등 수상스포츠, 관광, 숙박 등의 산업과 연계하여 여가 및 스포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낚시로서 배스 루어 낚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스 루어 낚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고 배스 루어 낚시로 인한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레저스포츠 낚시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배스루어 낚시인들, 어류 생태학자,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통한 연구,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낚시인들 대상의 연구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스 루어 낚시 이외에도 일반 민물낚시와 바다낚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 다양한 유형의 낚시가 레저스포츠 피싱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다양한 연구방법의 조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종호, 이정삼, 이현동(2012). 낚시산업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계간해양수산**, 2(3), 128-130.
- 국립수산과학원(2007). 외래 위해어종의 생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1차년도). **NFRDI**, 81.
- 김기철, 윤유식(2012). 레저 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과 레저스킬수준 및 참여에 관한 연구 스포츠 피싱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3), 25-41.
- 김동열(2008). **레저스포츠 피싱 발전을 위한 제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옥(2008). **루어 낚시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지민, 우듬지(2013). **(짜릿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 Every Hobby.
- 김진한, 정종태, 박정환, 박수영(2004). 낚시용 루어 제조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학회지**, 제 5권 제 2호, 129~136.
- 김현맥, 길지현, 이의행, 안광국(2013). 국내 중대형 인공호에서 외래종인 배스의 분포 특성 및 서식지의 이화학적 수질. **한국하천호수학회**, 46(4), 541-550.
- 김희재, 박석(2010). 미국의 스포츠 피싱. **한국레저스포츠피싱학회지**, 1(1), 28-32.
- 낚시춘추(2015). “2015 배스토너먼트 결산.”
http://fish.darakwon.co.kr/fishtech/fishtech_view.asp?b_no=9118&code=n(검색일 2020. 9. 30)
- 농림수산식품부(2012). 낚시 산업 활성화 대책(안).
- 마경대(매일신문 2019.3.25.). “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지정.”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32009423668311>(검색일 2020. 9. 27)
- 윤여경(매일일보 2017.10.12.). “철원군, ‘학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48912>(검색일 2020. 9. 27)
- 박종구, 조태영(2008). 스키어와 스노우보더간 여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 32권 제 3호, 297-317.
- 서동찬(1998). **표준낚시 백과사전**. 도서출판 자연과학.
- 소병천(2006). 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4(1), 195-222.

- 손민우, 변지선(2016). 농업용 저수지 하계 외래어종 분포특성 파악.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집**, 10, 99-100.
- 이두영(영남일보 2016.12.30.). “안동호 배스낚시대회 ‘경제월척’ ...올해 1만여 낚시인 50억 이상 지출.”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1230.010090739440001>(검색일 2020. 9. 27)
- 오세숙(2017). 낚시문화의 시대별 여건변화와 여가적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41권 제1호, 27-44.
- 오세숙(2014). 루어낚시 참여자의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 2호, 297-307.
- 의안정보시스템(2021).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2100046.
- 이강(20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과 낚시면허제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 161-186.
- 이광남(2003).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 34권, 제 1호.
- 이상고(2003). 해양낚시(해양유어)의 제도적 관리 타당성에 관한 공공경제학 및 환경경제학적 분석연구. **수산경영논집**, 34(1). 137-156.
- 이완옥, 양현, 윤승운, 박종영(2009). 옥정호와 용담호에 서식하는 배스 *Micropterus salmoides*의 먹이생물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어류학회지**, 21(3), 200-207.
- 이완옥, 이일로, 송하운, 방인철(2008). 우리나라 주요 강과 호수에 분포하는 외래어종 배스의 AFLP 분석에 의한 유전적 분화. **한국하천호수학회지**, 41(3), 395-401.
- 이현재, 성기준(2018).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환경공학회지**. 6(1), 27-32.
- 이현재, 성기준(2019). 간단한 거리교육과 홍보가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2), 671-679.
- 임준택, 서광철, 박근홍, 김상원(2018). 18.5ft급 경기용 배스 보트의 주요 제원 선정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4(7), 945-952.
- 장안성(2017). 낚시면허제 지지 영향 요인 분석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J. Fish. Bus. Adm.**, 48(2), 067-082.
- 전현욱(2021). 질적 연구에서 분석 작업의 성격과 과정. **교육인류학연구**, 24(1), 1-37.
- 정상원(현대해양, 2021). “어업인-낚시인 갈등, 손 못쓰는 정부.”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4>(검색일 2021. 8. 5)
- 조계근(2002). 낚시면허제(환경부담금)도입의 타당성 연구-강원도 내수면을 중심으로-. **세무학회계저널**, 제3권 1호.

- 한우진, 이장희, 여인성(2005). 스키리조트 이용자의 여가갈등에 관한 연구: 스키와 스노우보드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9, 195-207.
- 함동길(2014). **스포츠피싱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갈등과 대처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해양수산개발원(2020). KMI 인포그래픽.
- 환경부(2009). 호소 생태계 교란의 주범 블루길, 큰입배스를 잡아라.
- 환경부(2016). 법률 제 15833호 개정.
- 황희정(2013). 여가갈등 경험으로 인한 태도의 형성. **호텔관광연구**, 15(3), 454-472.
- Bernthal, Matthew J; Koesters, Todd; Ballouli, Khalid; Brown, & Matthew T(2015). Motivations and Fan Engagement Related to Professional Bass Fishing Spectatorship. *Sport Marketing Quarterly*, Vol. 24 Iss.1.
- Blahna, J.B., Smith, K. S., & Anderson, J.A.(1995). Backcountry Llama Packing: Visitor Perceptions of Acceptability and Conflict. *Leisure Sciences*, 17, 185-204.
- Carothers P, & Vaske J(2001). Social Values versus Interpersonal Conflict among Hikers and mountain Bikers. *Leisure Sciences*, 23:47-61.
- David Hart(2008). Anglers Paying to Catch Snakeheads. *Outdoor Life*, Vol. 215 Issue 10, 18-18.
- Devall, B., & Harvey, J.(1981). Who Hates Whom In the Great Outdoors; The Impact of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nd Technologies of Play. *Leisure sciences*, 4, 399-418.
- Donald Beal(2011). Factors Contributing to Conflicts and user satisfaction at Lake Gaston: Examining Conflict Between Personal Watercraft Users and Ang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East Carolina University.
- Jacob, G. R., & Schreyer, R. (1980). Conflict in Outdoor Recre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4), 368-380.
- Kuss, F. R., Graefe, A. R., & Vaske, J. J. (1990). Visitor Impact Management; A Review of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parks & Conservation Association*.
- Mark D. Needham, Brian W. Szuster, Camilo Mora, Laura Lesar & Emma Anders(2017). Manta Ray Tourism: Interpersonal and Social Values Conflicts, Sanctions, and Manage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5:10, 1367-1384.
- Melissa C., & J. MacDonald(2016). Northern Snakeheads in New York City. *Northeastern Naturalist*, 23(1), 11-24.
- Penny, Bauder(2004). Factors Influencing Sport Fishing Conflict on the Karluk, A Remote Alaskan Riv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Alaska Pacific University.
- Rachael, H(2016). Biological impacts and uses of black bass competitive fishing

- tournaments on large lake systems. Queen' s University.
- Stephen Gordon Sutton(2001). Understanding Catch-and-release behavior of recreational anglers. Graduate Studies of Texas 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Susan Schroeder, David Fulton(2010). Land of 10,000 Lakes and 2.3 Million Anglers: Problems and Coping Response Among Minnesota Angl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2, No.2, 291-314.
- Thai news service group(2012). United States: Snakehead fish fair game for anglers. *Asia news Monitor*. 26, 215-225.
- Thapa, B., & Graefe, A.R.(1999). Gender and Age Group Differences in Recreational Conflict and Tolerance Among Adult Skiers and Snowboarders. In: Vogelsan, H.G. (comp. ed.), *Proceedings of the 1998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219-226.
- Thapa, B., & Graefe, A. (2004). Recreation Cnflct and Tlerance Among Skiers and Snowboarder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2, 37-52.
- Vaske, J. J., Donnelly, M.P., Wittmann, K., & Laidlaw, S(1995). Interpersonal Versus Social Values Conflict. *Leisure Sciences*, 17, 205-222.
- Vaske. J. J., Dyar. R., & Timmons. N. (2004). Skill Level and Recreation Conflict Among Skiers and Snowboarders. *Leisure Sciences*, 26, 215-225.
- Vaske. J. J., Needham, M. D., & Cline, R. C. (2007). Clarifying Interpersonal and Social Values Conflict among Recreation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1), 182-195.

접수일 (2021. 07. 08)

게재확정일 (2021. 08. 23)

최종수정일 (2021. 08. 24)

Understanding Leisure Conflicts of Bass Lure Fishing and Exploring the Direction to Desirable Leisure Activity*

Jeong. Misong** · Kim, May***

Among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Korea, where advantages topographical features of sea water and fresh water resources, fishing is an annually growing leisure activity that has huge population and industries. Among different fishing genres, bass lure fishing requires dynamic actions and is booming among young people in Korea. However,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occur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ass lure anglers. Si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leisure conflicts related to bass lure fishing,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various problems and leisure conflicts arising in Korea. As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leisure conflicts regarding bass lure fishing,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Consequently, negative recognition on bass lure fishing, ambiguity on “catch and release” action, and absence of fishing right were the social value conflicts which were prevailing. Moreover, interpersonal conflicts between bass lure anglers and other interest groups such as fisherman, local residents were surging. This study tried to find fundamental causes, and seek solutions for the conflicts.

Key words : Bass lure fishing, lure fishing, leisure conflicts.

* This thesis is an excerpt and revised part from the master's degree in 2021

** Korea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Doctor's degree(First author)

*** Korea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Professor(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may@korea.ac.kr)